

2023. 7. 1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재관리과장	김 건 태	2133-2650
문화재관리팀장	윤 선 희	2133-2652
담 당 자	김 동 천	2133-2644
남산골한옥마을 한옥운영실장	이 재 진	6358-5535
남산골한옥마을 체험전시팀장	정 경 화	6358-5536
남산골한옥마을 체험전시팀	김 보 민	6358-5537
관련 누리집	<a href="http://www.hanokmaeul.or.kr">www.hanokmaeul.or.kr</a> 상단 <메뉴> → 좌측 <전시>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쪽

### 버려진 마스크, 아크릴, 페트병 등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전시

#### <한옥담뿔 : 한옥, 시대를 담다> 7월 11일부터 개최

- 7.11.(화)~8.20.(일) 남산골한옥마을 하우스뮤지엄 전시 개최
- 전통 가옥에 시대(時代)의 이야기를 가득 담은 특별 전시 프로그램
- <한옥, 시대를 담다> 전시, 버려지는 것들에 새로운 생명과 이야기를 담아낸다

- 서울시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7월 11일(화)부터 8월 20일(일)까지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뿔 : 한옥, 시대를 담다>를 개최한다.
- <한옥담뿔>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여름과 겨울에 각각 개최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그림, 조형물,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 전시 부제인 <한옥담뿔>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부제로, 올해는 집(屋)과 사회(社會)에 초점을 두어 그 둘 사이의 연결성과

상호관계에 집중해보았다. ‘시대를 담은 한옥, 재생을 닮은 한옥’이라는 뜻의 제목을 통해 이번 전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 이번 전시 <한옥, 시대를 담다>는 ‘코로나 19’와 ‘거리두기 해제’라는 현시대의 이야기를 한옥에 담은 전시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와, 플라스틱 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한 작품을 골라주, 3D프린팅, 설치작품 등 다양한 기법과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했다.
- 김하늘, 이혜수, 이창진, 최원서 총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 ▲ 남산골 한옥마을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은 주 전시장으로, ▲ 남산골 한옥마을 <삼청동 오위장(五衛將) 김춘영(金春營) 가옥>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전시를 즐길 수 있게 꾸며질 예정이다.
-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 사랑채>에서는 김하늘 작가의 ‘마스크’를 재활용하여 만든 감각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 및 별당채>에서는 ‘버려진 아크릴 조각’, ‘장난감 파쇄물’을 활용하여 이혜수 작가만의 기법으로 재탄생된 색채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 안채>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이창진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뺏을 예정이다. 또한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최원서 작가의 폐플라스틱 조각을 활용한 3D 프린팅 작품이 전시의 시작을 알리며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사랑채>에서는 폐마스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김하늘 작가의 특색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의 수요와 그에 따른 폐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한 상황에 집중하였고, 하염없이 쌓여만 가는 마스크 원단을 모으고 쌓아 녹이고 굳히며,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돌과 같은 질감으로 표현된 조형물 작품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 김하늘 작가는 버려지는 것이 다시 새로운 기능을 찾는 일, 지속 가능한 예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 및 별당채〉에서는 페아크릴 조각, 플라스틱 조각 등을 활용한 이혜수 작가의 감각적이고도 색채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정형과 비정형의 페아크릴·페플라스틱 조각을 작가만의 기법을 통해 비구상작품으로 탄생시키며, 나아가 인센스 홀더, 화병 등 업사이클링 생활양식 제품으로까지 생애주기를 연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기법인 조각보를 자투리 아크릴 작업에 적용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 이혜수 작가는 일상에서 향유하는 예술을 목표로 다양한 소재의 업사이클링 방법을 연구하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에 예술을 더한 비구상작품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관훈동 민씨(閔氏)가옥 안채〉에서는 이창진 작가의 페페트병을 활용한, 정적이고도 역동적인 모빌형태의 조형물 〈수평〉 시리즈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색소 음료와 천을 활용하여 작업한 개성 넘치는 작품이 이번 전시를 이색적으로 만들일 것이다.

- 이창진 작가는 최소한의 재료로 작업을 하고, 완료된 후에는 각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한다. 즉, 재료의 지속가능한 작업에 집중하며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마지막으로 <관훈동 민씨(閔氏)가옥>의 입구와 마당에는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최원서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그의 작품 <퇴적> 시리즈는 분쇄된 페플라스틱을 3D프린팅 하여 억겁의 세월 이후 도래할 미래의 지층을 구현한 작품으로,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가시화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의 부제인 ‘한옥담뿔’을 작가의 작품에 프린팅하여 전시의 주제를 가득 담은 상징물로서 존재할 예정이다.
  - 최원서 작가는 주로 기성의 산업재료나 기계 공정과 같이 용도가 명확히 부여된 것들을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의외의 장소에 배치시키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수동적이고 귀속적인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그것들의 잠재된 이야기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그만의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 <한옥담뿔 : 한옥, 시대를 담다> 전시는 무료 전시로 운영되며 09:00 ~ 21:00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7/17, 7/24, 7/31, 8/7, 8/14 월요일은 관람이 불가하다.
-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www.hanokmaeul.or.kr](http://www.hanokmaeu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옥마을 체험전시팀 (02-6358-5533)으로 연락하면 된다.

- 붙임**
1.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뿔 : 한옥, 시대를 담다> 개요
  2. 전시작가 소개
  3.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뿔 : 한옥, 시대를 담다> 공간 안내
  4.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뿔 : 한옥, 시대를 담다> 포스터 및 이미지

## 붙임1

### 행사 개요

#### 2023 남산골 하우스뮤지엄 <한옥담담> : 한옥, 시대를 담다.

- 일 시 : 2023년 7월 11일(화) ~ 2023년 8월 20일(일)  
09:00 ~ 21:00 \*가옥운영시간과 동일 \* 월요일 정기휴관일
- 장 소 : 남산골한옥마을 관훈동 민씨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 작가진 : 김하늘, 이혜수, 이창진, 최원서
- 관람비 : 무료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주)인사이트모션
- 문 의 : 남산골한옥마을 [www.hanokmaeul.or.kr](http://www.hanokmaeul.or.kr) 02)6358-5533

## 붙임2

### 전시작가 소개

#### 【작가소개: 김하늘】

작가 김하늘은 계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과 졸업하고, 현재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해 가구와 오브제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플라스틱 소재의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코로나 시대 속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2022 Recycling Designpreis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 **【작가소개: 이해수】**

작가 이해수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IDAS에서 디자인경영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업사이클링 아트 스튜디오 '아르크마인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크마인드'는 한국의 독특한 간판 문화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자투리 아크릴 조각과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 파쇄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과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곳이다. 녹색 미래정상회의 2021 P4G Seoul 참여국 정상회담의 선물을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하는 등 입지를 넓히고 있다.

### **【작가소개: 이창진】**

작가 이창진은 부산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였고 동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예술지구P'의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 6회의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약 2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알리고 있다. 그는 설치미술을 기반으로 사진과 영상, 회화, 퍼포먼스 등 동시대 시각 예술 분야에서 다채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작가소개: 최원서】**

작가 최원서는 한양대학교 테크노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산업디자인과 공예적 시각을 바탕으로 오브제와 가구를 디자인한다. 작가는 일상에서 발견한 패턴이나 재료와 형태를 탐구해 작업을 전개한다.

2021년 개인전 《Reposition》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약 25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3****남산골 한옥마을 내 프로그램 공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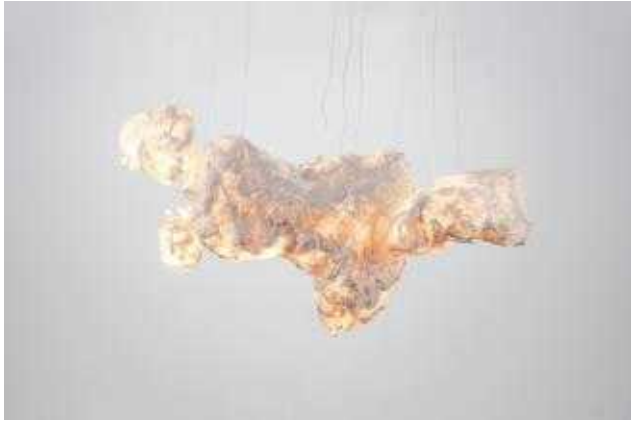
전시 명	작가	전시 장소	포토존
<p>&lt;한옥담뿔&gt; 한옥, 시대를 담다</p>	김하늘	관훈동 민씨가옥 사랑채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이혜수	관훈동 민씨가옥 안채 및 별당채	
	이창진	관훈동 민씨가옥 안채	
	최원서	관훈동 민씨가옥 입구 및 마당	





붙임 4-1

2023 남산골하우스뮤지엄 대표 이미지



<Organic series> 김하늘 ©남산골한옥마을



<Doof of Paradise> 이혜수 ©남산골한옥마을



<수평> 이창진 ©남산골한옥마을



<퇴적\_가공된 바위> 최원서 ©남산골한옥마을